

#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

(김원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9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29일  
발 의 자: 김원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구미경, 김경훈,  
김동욱,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춘곤, 김형재,  
문성호, 박 석, 박수빈,  
박영한, 박철성,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윤영희, 이민석,  
이봉준, 이종태, 이효원,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최재란, 최진혁, 허 훈,  
황유정, 황철규 의원(35  
명)

## 1. 주문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양국의 지속적인 인명피해 발생과 피난민의 비인도주의적 환경 노출이 지속되고 있는 바, 전쟁의 참혹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명살상의 즉각 중지와 인도적 지원 및 전쟁 종식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6개월이 지났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군인 및 민간인 사망자가 1만 5천명에 달하고, 665만명에 이르는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 또한 사망자 4만 5천명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전쟁은 어떠한 형태이건 용납될 수 없으며, 종식되어야 하며, 어린이와 민간인 등을 포함한 인명 살상은 발생되어서는 안될 비극인 것임.

특히, 마이우폴 등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포격 공습과 기차를 포함한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 학교와 의료 보건 외교 문화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그 폐해와 피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상태임.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을 촉구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4. 이송처

- 국회, 외교부

#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

8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발발한지 6개월째 되는 날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인 군사 공격과 그 결과로 발생한 피해상황은 최근에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규모이며,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양상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계획이 당초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국민의 강한 항전의지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폭적인 경제지원속에 나토의 결속력으로 지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도발로 우크라이나는 군인 전사자가 9,000명에 이르고, 민간인 5,500명이 사망했으며 어린이도 972명이 희생된 가운데 유럽 각지에 피난민 665만 7, 918명이 흩어졌다고 UN난민기구는 밝히고 있다.

러시아 측도 러시아군인 사망자 45,000명을 포함한 부상자 포함 8만명이 희생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쟁은 어떠한 형태이건 종식되어야 하며, 무차별한 인명 살상은 더더욱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비극이다.

유엔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적대 행위로 인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개탄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의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명시한 유엔 총회 결의안이 지난 3월 24일날 채택됐다.

유엔은 지난 3월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특별총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위기에 관한 결의안을 찬성 140표, 반대 5표, 기권 38표로 압도적으로 채택한 바 있다.

특히, 마리우폴 등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포위·포격·공습, 기자를 포함한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 학교와 의료·보건·교통시설 등에 대한 공격, 우크라이나 지방 관리 납치, 외교·문화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유엔의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결의안 내용이 조속히 실행되기를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등 인명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어린이와 민간인 등 인명 살상을 중지하고 전세계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의 허용을 촉구한다.

둘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병력을 즉각 철수하고 전쟁 종료를 촉구한다.

2022년 8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